

김재준의 평화 사상과 신학

정지석(성공회대 강사)

I. 서론

II. 김재준의 평화 사상

1. 한국 전쟁
2.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
3. 핵무기와 핵전쟁
4. 군사주의에 대한 태도

III. 김재준 삶과 영성에 나타난 평화 영성의 변모

IV. 김재준 평화 사상에 대한 신학적 성찰

1. 기독교 현실주의
2. 사랑의 신학

V. 결론

• ABSTRACT •

This essay deals with Kim Jaejun's idea of peace in the light of just war theory and pacifism which have represented Christian attitudes to war and peace. His attitudes to Korean war, Vietnam war and the issue of sending Korean soldiers to Vietnam, nuclear war and weapons, militarism are examined in turn, and the theological influences on the attitudes are explored.

Kim Jaejun saw that a war against Communism could be justified, and in that sense perceived Korean war and Vietnam war as just wars. In the same way he understood Vietnam war as a just war against Communism. However he criticized that a policy of Park Chunghee regime to send Korean troops to Vietnam was morally wrong. He was a moral just war theorist who adhered to 'peace oriented just war theory' based on morality. He recognized a necessity of a military buildup to defend a liberal democracy from a Communist attack. In this regard he understood peace as a politically realistic idea compatible with security and freedom. Basically Kim Jaejun's idea of peace was based on just war theory. On the other hand he assumed an absolute pacifism so far as the issue of nuclear war and weapon.

The theological influence on Kim Jaejun's idea of peace is explored in terms of Christian realism, love, freedom, social justice and his life and spirituality. A connec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peace is seen in Kim's religious seeking for the spirituality of poverty, the lives and spiritualities of St. Francis and Tolstoy in particular. For Kim Jaejun peace is defined theologically as a practice of love with justice and freedom.

Key words: Kim Jaejun, Peace, Just War Theory, Pacifism, Love

I. 서론

김재준(1901~1987)은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를 살았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전쟁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서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일본이 벌인 전쟁의 곤욕을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경험했으며, 해방 후에는 남·북한간의 동족상잔의 비극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게 절감했다. 그는 역사와 인간의 삶을 신학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또 그 자신 믿는바 진리를 살고자 했던 “생활신학”자이자 “생활신앙”인 이었다. 신학적 숙고의 대상으로 역사와 인간의 삶을 외면하는 신학자는 없겠지만 김재준은 특히 교회의 역사 참여를 강조했으며, 그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장로회(기장)와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학)은 그의 영향아래 사회참여의 신앙과 신학 전통을 형성해 왔다. 김재준의 신학적 사유에서 인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보여 진다. 과연 김재준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신학적 성찰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구하고자 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김재준의 평화사상과 신학을 다루는 본 연구는 평화문제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응답되어 나타난 신학자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서 한국 평화신학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김재준은 평화에 대한 글을 역사적 시기마다 써 놓았다. 본 글은 먼저 김재준의 평화사상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전쟁, 핵무기와 핵전쟁, 월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군사주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기독교 평화론의 대표적인 두 이론인 평화주의(Pacifism)와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김재준의

평화 사상을 형성하는 신학적 근거를 밝힌다. 이는 곧 그의 평화신학적 사고를 살펴보는 일이 되며, 아울러 그의 평화사상에 미친 신학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끝으로 김재준의 평화사상과 신학의 내적 터전인 평화 영성의 면모들을 그의 삶과 인격 차원에서 조명한다.

아울러 본 글의 한계를 밝혀둔다. 현대 평화론에서 평화는 전쟁과 군사주의에 국한되지 않은 더 큰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약성서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shalom)은 인간 삶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의미한다. 에큐메니칼 평화신학 논의에서도 평화의 개념은 전쟁의 부재로서 소극적 이해보다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런 넓은 의미의 평화의 관점에서 김재준의 평화 사상과 신학을 다루는 작업은 곧 그의 삶과 신학 전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김재준이 주로 평화 사상을 표명했던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태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김재준의 평화사상

1. 한국전쟁

김재준은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했다. 자서전인 『범용기』에 그는 목사이며 신학교 교수로서 피난가지 못한 채, 북한 공산군 점령하의 서울에서 지내며 고생하던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다.¹⁾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김재준이 한국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글을

1) 한국전쟁을 다룬 학술 저작으로는 교회사회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으로는 김홍수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와 사회학적 관점에서 김동춘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서울:돌베개, 2000)가 참고할 만하다.

몇편 썼다는 것이다. 신학적 단상 형식으로 쓰여진 그의 글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전쟁기간 중이던 1952년 김재준은 ‘자유, 독립의 정신적 기반’이란 글에서 한국전쟁을 공산 노예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이 철의 장막 속에 갇혀 3천만이 다함께 노예가 되느냐 그렇 치 않으면 민주진영에 가담하여 3천만이 다같이 자유해방을 누리느냐 하는 갈래에서 이 3천만의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세계 자유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²⁾ 이라고 한국전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김재준은 6.25 전쟁을 북한 공산군의 침략 전쟁으로서 악한 전쟁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쟁으로 믿었다. 이런 의식은 전쟁 당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남한 정부와 연합군의 입장과 같은 것이며, 또한 남한 교회가 취하고 있던 입장까지도 같은 것이었다. 전쟁 중에 남북한 교회는 각각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갈라져서 자기편의 승리를 기원하는 체제 이데올로기의 종교가 되어있었다.³⁾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전쟁에 대한 김재준의 입장은 체제 이데올로기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김재준은 공산군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에게 평화는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 노예화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공산주의의 노예화가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은 1953년 한국전쟁에 대해 쓴 ‘환

2)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김재준 전집 2』(서울:한신대학 출판부, 1992), 122. 이하 『전집』이라 칭함.

3)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59~78 참조.

란과 평화’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평화에 관해 논하기를, 기독교 평화는 불교나 도교가 말하는 도를 깨우친 상태, 즉, 도인이나 해탈한 사람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서 얻는 평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서 그는 요한복음 15장 18~19절, 16장 2~3절과 32~33절을 거론하면서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기독교 평화론을 취하고 있다. 김재준은 세상사에 초연하고 오직 신앙의 내적 평화만을 추구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평화에 대한 태도를 “사랑 없는 율법주의적 평화”라고 비판하고 “크리스찬으로서서는 있을 수 없는 평화 개념”이며 “자기중심적인 심리적 도피성이요 기독교적 실재는 아니라”⁵⁾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서 우리는 김재준의 평화사상은 영적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거부하는 신앙적 평화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싸워야 할 정당한 이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김재준의 입장은 1970년, 6.25전쟁 20년을 맞아 쓴 두개의 글, ‘6.25와 세계평화’(새가정지)⁶⁾ 와 ‘망치 태평서의 엑소더스’(자유지)⁷⁾에서 다시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남북 간의 이념대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6.25와 세계평화’란 글에서 그는 6.25 전쟁을 공산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증명해 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공산 진영의 평화론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비판한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혁명을 위해 전쟁 수단을 정당하게 여기며 국제연합에 가맹하는 것도 평화에 기여키위

4) 『전집 3』, 40~43.

5) Ibid., 41.

6) 『전집 9』, 215~221.

7) Ibid., 222~228.

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전 효과를 노린 술책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김재준은 한국전쟁에서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평화수호의 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국군의 용감한 전투력과 국민의 일치된 반공정신과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이 뒷받침한 데서 유엔은 한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⁸⁾ 고 적고 있다.

‘망치태평서의 엑소더스’란 글에서 김재준은 6.25 전쟁의 교훈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6.25의 교훈을 후손에게 전해주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안보와 무장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은 공산군의 기습 침략이었고 남한의 허술한 경계태세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언제나 남한사람들은 김일성의 남침 기도를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김재준은 역설하고 있다. 또 그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변함없는 주둔과 신속한 국군 근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 공산당 점령아래서의 자유의 박탈을 절실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김재준이 체험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공산치하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주인이 각자의 정신적 왕국을 송두리째 점령당하고 종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은 가장 심한 인간성 박탈”⁹⁾ 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당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 이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충고한다. 셋째, 한국전쟁 중에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 생활의 궁핍함속에서도 삶의 보람을 느꼈던 기억을 잊지 말자고 말한다.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한 삶에서 온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자고 한다. 넷째,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이다. 김재준은 남북한의 치열한 이념갈등의 와중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의 제일조건임을 재삼 강조

8) Ibid., 220.

9) Ibid., 223.

하고 있으며, 이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요약해본다면, 6.25 전쟁에 대한 김재준의 태도는 공산 노예화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워야 일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산군의 침략을 지지하는 길로서 군사력 증강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가 매우 현실주의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이었던 남북한 간의 이념 갈등을 초월한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신학적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2.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하여 1965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이 비전투 한국군 2천명을 파병한 이후 1966년 9월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의 전쟁이 되었다. 1965년부터 대대적인 월맹폭격을 가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전 평화운동이 일어났고, 미국 신학계에서도 월남전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다. 1965년 3월 미국의 진보적인 신학지인 「기독교와 위기」誌는 라인홀드 니버와 존 베넷이 미소간 세계 냉전에서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베트남 공산군과의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옹호하는 글을 실고 있었다.¹⁰⁾

김재준은 1965년 2월에 쓴 ‘평화에의 의지와 노력’¹¹⁾ 이란 글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공산진영을 몰아내기위한 폭격과 무력 사용은 “당연한 처사”라는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

10) 지명관, “평화에 대한 교회의 증언”, 「기독교 사상」 5(1966), 24~31 참조.

11) 『전집 7』. 283~285.

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통한 미국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적 행동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한 해결방식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경제발전과 같은 평화 산업 건설에 투자하는 길이 공산주의를 막는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준의 이런 입장은 매우 유연한 실용적 평화론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고집스레 군사적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김재준의 정당한 전쟁론과 정치 권력자들의 정당한 전쟁론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주류 기독교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서 삼아 온 정당한 전쟁론은 정당한 이유를 갖는 전쟁인 경우 기독교 신앙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론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권력자의 무분별한 탐욕 전쟁을 제한하려는 평화윤리의 입장을 가진다. 평화주의자들은 현실 역사 속에서 정당한 전쟁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현실 정치권력의 전쟁 정책을 비판하고 전쟁 반대와 억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써 정당한 전쟁론의 평화 윤리적 관점을 강조한다.¹²⁾ 김재준이 취한 입장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공산화를 막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쟁 수단에서 군사적 무력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행위를 정당한 전쟁론의 평화 윤리적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통해볼 때 김재준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동시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숙고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글에서 김재준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비판하고 있다. 박정희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적 지원을 댓가로 한국군의 파병을 결정했

12) James Turner Johnson,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던 것이지만, 이를 김재준은 “불난 집에 불끄러가서 도둑질하는 것은 창피하고 비열”¹³⁾ 한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 청년들이 연달아 명분 없는 전쟁에 피를 쏟게 됐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본질적으로 월남과 같은 제 3세계인 처지에서 제3세계의 적과 어울려 제 3세계를 때린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겠다”¹⁴⁾ 고 한다. 베트남 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 미국을 제 3세계의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급진적 사상에 속한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은 더 이상 정당한 전쟁이 아니며, 제 3세계의 해방전쟁일 수 있다는 의식변화가 엿보인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와 존 베네트는 처음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지지했지만 후에 잘못된 전쟁으로 비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은 김재준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한국 기독교계는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였던 길진경 목사는 “월남 파병이 국가의 문제이고 민족 전체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교회도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무였던 김준곤 목사는 “월남전은 공산 노예화로부터의 해방전쟁”이므로 교회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파병 정책을 지지했다.¹⁵⁾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대다수 입장을 반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재준은 베트남 전쟁을 공산주의와 맞서는 정당한 전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에 서 있었지만, 한국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

13) 『전집 14』, 58.

14) Ibid. 57.

15) 김성환, ‘불안한 평화’, 『기독교 사상』, 1(1967), 109-115 참조.

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평화적 수단의 효용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무력 일방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김재준은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평화 의식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1968년 한국정부의 베트남 전쟁 파병에 항거하여 외로운 단식 투쟁을 벌였던 함석헌은 파병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침묵, 특히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지성인 김재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재준은 비록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한국 기독교계와는 달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김재준의 입장에서 보여 지는 평화사상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평화적 방안을 추구했던 실용적 평화주의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3. 핵무기와 핵전쟁

김재준은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해 비교적 많이 거론하면서 절대적 반핵 평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가까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처음 투하되었던 원자 핵폭탄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 핵무기 경쟁과 이에 맞선 반전 반핵 평화운동, 특히 세계교회의 반핵 평화운동과 평화신학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보여 진다. 핵무기 출현이후 기독교 평화 윤리는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평화주의의 윤리적 타당성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¹⁶⁾

한반도는 핵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사령관

16) Lisa Sowle Cahill, *Love Your Enemies*(Minneapolis:Fortress Press, 1994), 1~3.

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바 있으며, 정전 이후 미 소 간 핵경쟁의 여파는 급기야 남한의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를 설치하도록 만들었다. 남한이 미군의 핵우산아래 들어간 것은 1957년 7월부터이며, 주한 미군 기지에 핵무기 배치를 공식 선언한 것은 1958년 1월이다.¹⁷⁾ 이는 우선적으로 소련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곳은 북한이었고, 또 중공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북한이 핵 억제력을 위한 핵개발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 보유가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중공 역시 핵개발에 착수해 1964년 10월 원폭 실험에 성공한다.

이런 일련의 주변 정치 상황은 김재준으로 하여금 동시대 가장 긴요한 평화의 문제로서 핵무기와 핵전쟁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날짜가 나타나진 않지만 1950년대 후반에 쓰여진 ‘라멕의 검가’¹⁸⁾ 라는 글에서 김재준은 절대적 반전 반핵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 도입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나, 핵무기를 통한 안보 추구의 태도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의 핵무기 비판은 신학적이다. 핵전쟁은 인류 최후의 불의 심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세상의 무력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신앙의 삶에서 인간의 참다운 삶의 길은 있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¹⁹⁾ 김재준의 평화신학은 정치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정치 신학적 면모를 갖는다. 그는 핵무기 경쟁하는 핵보유 국가에

17) 한겨레 사회정치연구소 정치분과 엮음, 『남북한 45년사』(서울: 월간다리, 1990), 126~127.

18) 『전집 4』, 458~463.

19) Ibid. 463.

대하여 핵무기 생산을 중지할 것,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국제 관리에 맡길 것, 군비를 축소하고 원자력을 평화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선교적 사명이라고 역설한다.

김재준의 반핵 반전 평화주의 사상은 1960년대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핵전쟁은 적과 아군의 구별 없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는 전쟁인 이상, 세계 신학계에서도 기존의 주류 교회의 입장이었던 정당한 전쟁론에다가 기독교 평화주의를 결합시켜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김재준이 핵문제에 관한 한 절대 반전 평화주의 입장을 취했던 것은 이런 세계 신학계의 흐름과도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는 “3차전의 유발을 묵과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전 인류의 사멸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 인류가 이를 한사코 저지해야한다”²⁰⁾ 면서 절대적 반전 반핵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1965년 3월 「사상계」에 쓴 ‘세계평화의 문제’란 글에서 김재준은 다시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제3차 세계 전쟁을 막는 것이 당면한 평화운동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광인의 소행일 것이며 그것은 전쟁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살인행위, 즉 살인을 위한 살인행위 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¹⁾ 김재준은 당시 정치 현실주의자들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핵 억제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핵무기 생산이란 신경적으로 냉전용으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열전용으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악마적인 것”²²⁾ 이라면서 핵 현실론자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상당히 정치 현실주의적 사고를 했던 김재준이지만 핵문제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준의 반전 반핵 평화주의는 단지 신념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는

20) 『전집 7』, 284.

21) Ibid., 323~324.

22) Ibid., 324.

다. 그는 핵무기 경쟁과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심에 호소하는 종교적 도덕적 이상주의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입장에서 김재준은 핵사찰 제도, 대륙별 지역 연방제와 보편문화론을 제안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사찰 제도를 상설화하여 핵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륙별 지역 연방제를 통해 미소 강대국의 일국 지배 야욕을 넘어 세계를 평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 보편문화론을 제기한 것은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세계 냉전을 극복하려는 의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재준의 평화 사상은 신학적이면서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평화 방안을 강조하는 그의 평화 사상은 실용적 평화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재준의 절대적 신념에 근거하면서도 정치적 실용성을 띤 반전반핵 평화주의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준비가 되어있는 일본과 현재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믿어지는 북한 간에 벌어지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한국교회가 취할 수 있는 평화신학과 선교에 여전히 유효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4. 군사주의에 대한 태도

김재준은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남북한 대립 상황에서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 군사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평화의 필수 요건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한국 전쟁에서의 고난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남한과 미국의 허술한 안보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한 방위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군수 공업의 발전, 자주적 국방력, 국군 장비 현대화등과 같은 현실적인 군사력 증강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김재준은 평화란 오직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무력, 즉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재준은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후 쓰여진 ‘국민 국회 안보’란 글에서 김재준은 “미국이 진정 세계 평화를 원하고 국련의 침략 불허 정신을 준수한다면 한국에서 중공에 맞설 수 있는 방위 결의를 재천명하여, 공산침략을 단연 불허한다는 강경한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 그리고 감군보다도 오히려 증군을 선언하는 것이 호전적인 적의 행동을 막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²³⁾ 고 말하고 있다. 김재준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전쟁 예방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의 평화 사상이 언제나 정치 군사적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김재준의 입장은 ‘정치 군사적 평화 현실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사주의를 전쟁의 위협요인으로 보고 군축을 강조하는 반전 반군사적 평화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군사주의에 대한 김재준의 현실주의적 접근은 군사적 무력을 동원하여 정치권력을 전복했던 5.16 군사 쿠데타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했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를 윤리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폭력 혁명이 비민주적인 수단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23) 『전집 9』, 279.

최악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완전주의라 하겠다. 역사는 그 생동과정에서 때로는 그런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²⁴⁾

김재준의 이와 같은 입장은 폭력 사용의 절대불가를 신념으로 삼는 절대 평화주의자들에게서 주로 보여 지는 윤리적 완전주의와 그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무책임과 침묵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한다.²⁵⁾ 김재준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과 사회 현실로부터 신학적 사고를 하기에 절대 평화주의와 같은 완전주의 윤리를 수용하지 않으며, 비록 불완전한 윤리적 태도일지라도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 사용은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력 동원 여부만 가지고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김재준은 5.16 군사혁명을 “국가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 수술이라는 것으로 국민의 양해를 구한 것”²⁶⁾으로 보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혁명과 같이 비상수단을 사용한 혁명이고, 또한 무혈혁명이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5.16 쿠데타에 대한 김재준의 이런 태도는 당시 무능하고 혼란스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데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에 김재준은 군사정권의 불의한 폭력성이 드러났을 때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김재준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정당한 일로 확신했다. 김재준의 평화 사상에는 정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보았던 까닭은 부정부패를 씻고 사

24) Ibid., 447.

25)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한 정통신학의 비판에 대해서는 Reinhold Niebuhr,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in Richard Miller(ed.), *War in the Twentieth Century: Sources in Theological Ethics*(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8-46 참조.

26) 『전집 9』, 449.

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독재의 폭력성을 드러냈을 때 김재준은 가차 없이 비판했고, 정의의 이름으로 투쟁할 수 있었다. 유신독재의 폭력적 탄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75년 김재준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이 이에 적응하거나 체념하여 무기력한 침묵만을 계속한다면 한국 역사는 침체되고, 한국 민족은 위축되어 세계 역사의 진전과정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저항해야 합니다. 기미독립운동은 민족적 항거였습니다. 항거란 것은 당장 권력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한 횡포권력의 부정입니다. 국민생활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와의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법적인 것보다도 도덕적인 것을 우위에 두려는 실천적인 주장이 항거행위인 것입니다.²⁷⁾

또한 1981년 5월 17일 힘의 정의를 내세우는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글에서는 약육강식의 강자 중심의 진화론적 사고보다는 샤르텐의 생물 안에 내재한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성을 중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정권의 폭압을 비판한다.

지금 한국의 별같이 불꽃같이 폭발하는 지성들이 저급한 폭력에 눌러 창조와 진화의 행진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범죄에 해당된다. 백만년 걸린 하나님의 성업을 뚝뚝은 군화로 짓밟은 것은 죄가 아니겠는가.²⁸⁾

27) 『전집 16』, 93.

28) 『전집 15』, 39.

김재준이 비록 적대적 인간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위해 방법으로 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군대를 지지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의 군대는 국가의 간성이 라지만 그 심층에는 동질의 비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²⁹⁾ 라고 하면서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군대에 대한 김재준의 기본 입장은 대립과 공산주의 적대세력의 현실적 위협의 현실 속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현실주의를 반영한 평화사상은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III. 김재준의 삶과 인격에 나타난 평화 영성의 면모

김재준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성 프란치스는 청빈과 영성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평화의 영성을 갖고 몸소 실천에 옮겼던 평화의 성자였다. 김재준은 3.1운동이후 1920년대 서울에 와서 톨스토이와 성 프란치스에 관한 책을 읽었다. 두 인물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평화 사상가요 영성가이다. 성 프란치스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적에게 갔고 적을 형제로서 사랑했던 평화 영성가였다.³⁰⁾ 톨스토이는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과 십가가의 정신을 투철하게 따르고자 했던 무저항 평화주의자였다.³¹⁾ 김재준은 이들 두 평화 영성의 대가들을 지극히 좋아하고 삶과 신학에서 따르고자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이

29) 『전집 14』, 58.

30) Marie Dennis, Joseph Nangle, O.F.M. Cynthia Moe-Lobeda, Stuart Taylor, *St. Francis and the Foolishness of God* (New York: Orbis Books, 1993), 86.

31) Leo Tolstoy, 'Letter to Ernest Howard Crosby,' David P. Barash(ed.), *Approaches to Peac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6~180.

들의 무저항 평화사상과 기독교 평화주의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김재준이 이들로부터 크게 감동하며 그대로 따르고자 노력했던 점은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고 포기하는 청빈의 영성이었다. 그는 성 프란치스의 “무일푼의 탁발승으로 평생을 걸식 방랑한 공의 기록, 공에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퍼져가는 인간과 자연에의 사랑 이런 것이 나를 매혹시켰다”³²⁾고 말하며, 또 귀족이었던 톨스토이가 자기 재물을 털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톨스토이에게서 물질을 소유하는데 대한 바른 태도를 배웠다”³³⁾ 고 자서전에 적고있다. 비록 이런 청빈의 영성이 평화주의 사상은 아니지만 상호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김재준이 이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청빈과 사랑의 정신은 평화 영성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요소이다. 예컨대 김재준이 성 프란치스의 무소유의 영성을 “사랑을 위한 공간”³⁴⁾으로 이해했던 것은 후에 나타나는 김재준의 평화신학적 사고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사상으로서 ‘이웃 사랑’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김재준의 평화영성에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은 간디이다. 김재준은 생전에 간디를 깊이 존경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48년 간디의 암살 소식을 접하면서 김재준은 ‘세기의 태양이 지다’란 제목의 글에서 “간디 어른! 그는 예수를 믿노라고 떠들지 않았으나 확실히 예수를 산 사람의 하나일 것”³⁵⁾ 이라는 감회를 적고 있다. 김재준은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는 무저항 평화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간디의 무저항 평화주의, 즉 평화적 방식으로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는 평화주의 사상과

32) 『전집 13』, 54.

33) Ibid. 66.

34) 『전집 15』, 11.

35) 『전집 1』, 211.

실천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했다. 이런 입장을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대영제국을 사랑할 수 있는 심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무저항적 저항! 그것이 확실히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암시받은 길이었다. …사랑은 진리다. 정의도 진리다. 사랑하면서 불의와 싸우는 길, 그것은 오직 자발적인 희생을 통한 무저항적 저항이 있을 뿐이다.³⁶⁾

비폭력 인도주의 정신은 김재준의 평화영성의 주요한 요소였으며 이런 바탕에서 그는 간디와의 영적 일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김재준의 비폭력 인도주의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더 풍부해진 것이지만, 본래 폭력을 싫어하고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녔던 그의 성품에서 길러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인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며 김재준은 “내게는 계집애고 사내고 문제인 것이 아니었다. 저 가냘픈 생명이 험한 세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해서 애처로웠다”³⁷⁾ 는 심정을 적고 있다. 어리고 약한 생명에 대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교사 시절 교무실에서 훈육을 이유로 학생을 때리는 동료 교사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꼈다는 글을 적고 있는 대목에서도 그가 폭력을 본질적으로 혐오하는 성품을 가졌음을 보여준다.³⁸⁾

또 하나 김재준의 평화영성에서 주목할 점은 양심에 대한 강조이다. 젊은 시절부터 구도자적 삶과 순례자의 인생을 추구했던 김재준은 자기 성찰을 통한 양심의 고양과 실천을 중시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자신을

36) Ibid., 212.

37) 『전집 13』, 137.

38) Ibid., 139.

깎보는 차표과는 역원에게 화를 참지 못했던 김재준이 “나는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했어”³⁹⁾라고 자책했다는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재준은 늘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생활 신앙인이고자 했다.⁴⁰⁾ 그러므로 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런 반성적인 자기 성찰의 모습은 40대에 접어든 김재준의 인간됨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평화영성은 이렇게 내면적인 자기 성찰에서 빚어지는 산물이다. 그리고 거기서 빚어져 나온 평화영성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김재준은 “모든 종교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교처럼 양심의 중요성을 고조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⁴¹⁾ 이라면서 그리스도 양심의 실천적 면모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신비한 종교 경험의 소유자라도 만일 그가 거만의 부를 가진 자이면서 기아에 시달리는 할머니, 거리에 헤매는 어린이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모든 변영의 배후에 숨어 흐르는 억울한 피를 볼 줄 모른다면 그는 새 세계에서 살 새 양심의 소유자라 말 할 수 없다.⁴²⁾

위의 글에서 우리는 김재준이 추구했던 사회의식과 양심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김재준은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불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기독교 신앙 양심의 척도로 보면서 책임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과 사회 불의의 문제는 20세기 평화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회 불의와 빈곤

39) 『전집 1』, 129.

40) 이 점에 대한 연구로는 『장공 김재준의 신학세계』(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안에 들어있는 류장현의 ‘김재준의 생활신학의 원리와 구조’(203~245)와 정종훈의 ‘장공 김재준의 신학 여정과 생활신앙의 기독교 윤리’(317~343) 참조.

41) 『전집 1』, 132.

42) Ibid., 135.

을 해결하려는 사회 개혁적 평화운동은 전쟁과 물리적 폭력을 거부하는 절대적 평화주의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평화운동을 형성했다.⁴³⁾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재준의 평화 형성과 삶의 지향성은 개혁적 평화주의로써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김재준은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앞장서서 나서고자 한 분이었지만 막상 자신이 결부된 분쟁 사건에서는 맞서 싸우기보단 뒤로 물러나는 인격이었다. 1959년 한신대 교사 신축비를 사기로 날려버린 조선출이 책임 문제를 지방 차별의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자 김재준은 다음과 같은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회정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던 김재준의 사회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나는 우울하고 격분했다. 신앙고백과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한 동지적 친교, 즉 코이노니아 위에 서야 할 기장이 지방감정, 교권 욕등등에 지배되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슬퍼졌다. 그럴 경우에 나는 은퇴한다. 조용히 산 속에 숨기도 하고 탈속한 신선같이 명승고적을 순례하기도 한다. 공자보다도 노자를 관우 장비보다도 도연명을 택한다.⁴⁴⁾

인간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맞붙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탈속하겠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저항 평화주의자들의 태도와 통하는 것이다. 동양사상에서 공자보다 노자, 관우 장비보다는 도연명을 택하겠다는 태도는 분쟁을 정치적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세속적 방식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일은 김재준이 60세에 일어난 일로서 그의 근본 인격이 분쟁을 싫어하고 세속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3) 정지석, '한국 기독교 평화윤리 연구: 기독교 평화주의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제 11집 (2006 여름), 210~217 참조.

44) 『전집 1』, 386.

요약해본다면 김재준의 평화영성은 청빈과 이웃 사랑, 비폭력 인도주의 정신, 양심에 기초한 사회개혁 정신, 세속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영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김재준은 전쟁과 군사주의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한 전쟁론을 옹호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현실적 도구로써 전쟁과 군사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무력 사용에는 결연하게 반대하는 윤리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어거스틴 이래 주류 기독교의 윤리학에서 고수해 오는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이다. 김재준은 저 세상적 평화, 마음의 평화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라고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역사적 삶속에서 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참여적 평화를 추구했다. 그러므로 김재준의 평화 사상은 현실 정치 세계에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영성적 면모는 그의 평화사상의 종교적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평화사상에 나타난 평화신학적 사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김재준 평화 사상에 대한 신학적 성찰

1. 기독교 현실주의

김재준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해서는 절대적 반핵 평화주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의 신념을 지키는 절대적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즉, 현실적인 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평

회주의는 무기력 일뿐이라는 것이 그의 비판의 요지였다. 그는 역사적 현실 속에 참여하여 사회 불의와 악을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평화를 만드는 일을 중시했다. 그렇기에 김재준은 무저항주의자이거나 절대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지키는 이들보다는 사회 개혁적 평화를 주창하는 신학적 입장을 취했으며, 이런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에 입각한 신학적 사고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재준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전쟁 반대를 신념으로 삼아 싸워야 할 때임에도 싸우기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현실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김재준의 태도는 호전적인 정당한 전쟁론자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의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은 평화 지향의 정당한 전쟁론자로서 개념 지워질 수 있다. 이는 어거스틴 이래 현재까지 주류 기독교 윤리학에서 견지하는 평화 윤리적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김재준의 평화신학적 사고는 철저하게 역사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재준의 신학적 입장은 라인홀드 니버의 입장과 유사하다. 니버는 정당한 전쟁론의 현실적인 윤리적 타당성을 옹호하는 바탕위에서 절대 평화주의를 비판했다.⁴⁵⁾ 김재준은 니버를 연구하고 잘 이해했다. 1962년 11월 『사상계』에 쓴 ‘기독교와 정치 라인홀드 니버의 경우’란 글에서 니버 신학의 요점을 개괄하고 있다. 여기서 니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바, 이는 김재준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전쟁은 축적된 인간악의 결과다. 전쟁은 이상주의적 설계에서 시작하여 파

www.kci.go.kr

45) Reinhold Niebuhr,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28-46 참조.

피적 광증에서 승리한다. 전쟁책임은 이상주의에 있다. 가장 도덕화된 자의 적인 전쟁이 가장 가혹한 전쟁이다. 절대적 비전론적 평화주의가 과연 기독교적일까?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이다. ... 우리는 이런 경우에 '비교적 적은 악'(Lesser Evil)을 택할 밖에 없다. 그것이 '가능한 최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목표를 보임과 동시에 현실에서 대결한다. 우리는 다시 전쟁이 없도록 최선의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연합은 최대한으로 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정황에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강대국 간에 전란이 벌어질 때 그 두 편을 함께 누를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세계 국가란 당분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2. 사랑의 신학

김재준의 평화 사상은 그의 신학적 사고의 중추가 되었던 이웃사랑과 자유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김재준에게 신학은 사랑의 실천을 위한 학문이었다. 일찍이 성 프란치스와 톨스토이로부터 깊은 영적 감명을 받은 것도 사랑의 실천한 그들의 삶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김재준의 평화 신학적 사고의 근저에는 사랑의 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김재준이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부정하면서도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에 서고, 정의를 위한 폭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근본배경에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김재준의 신학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김재준 신학의 봉우리라 평가할 수 있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론에서 평화 사상의 진면목이 잘 나타나고 있다. 1983년 토론토 연합교회 설교에서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나라의 산천만이 아니라, 이지구위의 만물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모든 존재를 사랑하여 한 공동체 의식안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보

46) 『전집 5』, 405~406.

다도 전쟁을 들쭉시는데서 흥미를 돋굽니다. …인간에게 창조주는 낙원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대로는 지구가 우주의 낙원입니다. 이 지구라는 낙원을 사랑한다면 원자탄 수소탄을 던져 폭발시키고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독약으로 오염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생각합니다. 힘센 탄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8선을 그어 놓고 우리동쪽끼리 추켜 싸움을 붙입니다. 뭣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 뭣 때문에 서로 원수같이 미워하는가? 그까짓거 38선이야 있든 없든, 우리끼리서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 역사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고 육지거리 대신에 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조성을 호소한다면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인간 사랑이 인정되어 그립고 보고싶고 만나고 싶고 젊은이들은 남남북녀든 남녀북남이든 결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⁴⁷⁾

김재준은 말년에 쓴 6.25에 대한 단상에서 국군에 쫓겨들어온 공산군 폐잔병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다. “국군에게 들켜서 적을 숨겨준 죄로 잡혀가도 목사에게는 오히려 차원높은 긍지가 영광스레 남을 것”⁴⁸⁾이라는 것이다. 그의 인간 사랑의 신념이 반공주의 신념을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 사랑의 신학적 입장은 김재준의 평화사상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김재준의 평화 사상은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제 3세계의 해방,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억압받고 눌린 자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 옹호를 주 내용으로 삼는다. 그에게 평화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의 평화이며, 이런 사상의 근저에는 사랑의 신학이 작동한다. 1960년대 초반에 쓴 ‘전후 새 역사를 위한 기독교의 사명’이란 글에서 김재준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한 것은 이웃 사랑의 정신을 망각했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정복하는 것

47) 『전집 16』, 351~352.

48) 『전집 15』, 42.

은 평화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위배하는 최악이라는 비판에서 우리는 김재준의 사랑의 신학에 기반한 평화 신학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또 사랑의 윤리를 개인적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들의 관계에 확장시켜 적용한다. 국가 간 선린 우호관계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정신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재준은 공산당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근본 이유를 자유 수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았다. 질서보다도 자유를 중시하는 김재준의 신학적 사고는 그의 사회적 실천과 신학을 진보적인 것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의와 질서와 자유가 일체화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유”라면서 “질서가 중요하나 자유를 유린한 질서는 민주가 아니라 독재”⁴⁹⁾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독재의 길로 들어서자 “3천만 동포가 자유냐 억압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수수방관 한다면 위선자로서의 명패를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임적 행동을 강조했다. 또 본인 스스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이끌면서 반독재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이런 실천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평화를 구현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김재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재준은 교회와 국가는 상호 고유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김재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인간 공동 사회의 적극적인 복지건설을 위하여 국가는 항구적으로 존재해

49) 『전집 5』, 109.

야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국가가 시도하는 모든 건설적인 사업에 솔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웃을 위하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과정임과 동시에 국가를 통하여 또는 국가 안에서 인간의 현세 생활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응하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나 김재준은 또 국가가 전체주의가 되어 자신을 신경화시키고, 또는 교회의 신앙 내용에 간섭하려 할 때에는 교회는 순교적 각오를 갖고 항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재준의 반군사 독재 민주화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은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이다. 김재준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전쟁 기구로 인식하는 반전 반국가론자와는 다른 입장을 가졌다. 그렇기에 김재준은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력 보유, 공산당의 침략에 맞선 안보태세 확립등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김재준의 현실적 안보 평화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재준은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불의, 억압,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에게 평화 실천은 이웃 사랑과 자유를 위한 실천이었다. 그러므로 김재준은 개인의 내적 평화, 절대 신념으로서만 지키는 평화보다는 역사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평화를 추구했다.

V. 결 론

김재준은 전쟁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0세기를 살면서 현실에 기반한 평화 사상을 발전시켜왔으며, 때로는 전쟁을 지지하고 군사력 증강을

50) 『전집 5』, 132.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학적으로 김재준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은 정당한 전쟁론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김재준의 정당한 전쟁론은 정치 권력자들이 취하는 호전적인 정당한 전쟁론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평화윤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김재준의 입장이 이 글에서는 ‘평화지향의 정당한 전쟁론’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준의 입장은 여하한 조건과 이유에서도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평화주의 입장과는 다른 것임도 규명되었다. 신학적으로 김재준은 이웃 사랑, 자유와 사회정의를 중시함으로써 진보적 태도를 취했다. 또 이런 신학적 입장은 그가 평화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전쟁론에 서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는 평화주의자들을 사회적 악에 대해 침묵하고 이웃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로 비판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역사적 현실에 기반한 ‘현실적 평화’를 위해 책임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속에서 정의와 자유에 입각한 윤리적 판단 아래 적합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의를 위한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 반면에 김재준의 평화사상과 신학은 국가 방위와 전쟁 예방책으로서 군사력 증강론을 옹호하고 정당한 이유를 갖는 한 전쟁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끝으로 김재준에게서 보여 지는 평화지향의 정당한 전쟁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현실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참고문헌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 김성환. ‘불안한 평화’, 「기독교 사상」, 1967, 1월호, 109~115.
-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김재준 전집』 (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92),
_____. 『장공 김재준의 신학세계』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6).
- 정지석. ‘한국 기독교 평화윤리 연구: 기독교 평화주의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제 11집 (2006 여름), 210~217.
- 지명관. ‘평화에 대한 교회의 증언’, 「기독교 사상」 5(1966), 24~31.
- 한겨레 사회정치연구소 정치분과 엮음. 『남북한 45년사』 (서울: 월간다리, 1990).
- Cahill, Lisa Sowle. *Love Your Enem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Dennis, Marie. Nangle, Joseph. Moe-Lobeda, O.F.M. Cynthia. Taylor, Stuart. *St. Francis and the Foolishness of God* (New York: Orbis Books, 1993).
- Johnson, James Turner. *The Quest for Peace: Three Moral Traditions in Western Cultural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Niebuhr, Reinhold. ‘Why the Christian Church Is Not Pacifist’, in Richard Miller(ed.), *War in the Twentieth Century: Sources in Theological Ethic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8~46.
- Tolstoy, Leo. ‘Letter to Ernest Howard Crosby,’ David P. Barash(ed.), *Approaches to Peac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76~180.

논문투고일: 2008. 4. 30

심사개시일: 2008. 5. 29

심사완료일: 2008. 6. 6